

누가복음 10 장

어떻게 사랑으로 사역을 할 수 있는가?

누가 복음 10 장을 보면, 예수아께서 사랑에 대해 간단히 __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5 에서 28 절에서는, 한 랍비에게 모세 율법의 주된 원칙이 종교 의식이 아니라 사랑임을 설명하십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으로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랍비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예수아께서는 당신께서 메시아이심을 믿어야 한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율법 가운데 기록된 것을 설명해 보라고 랍비에게 시키셨습니다. 대답을 한 것은 랍비였습니다. (이 대답은 1 세기 랍비 힐렐 학파가 취했다고 하는 입장과 유사합니다.)

눅 10:27 - 대답하여 이르되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네 자신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아께서는 그 랍비에게 토라의 의미에 대해 바르게 말했으며, 그 ‘사랑’에 대한 이중적 계명이 영생으로 인도하는 것이라고 확증하셨습니다. 그런데 적용의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아의 시대에 살던 바리새인들을 위선자들로 보기 쉽습니다. 하지만 동일한 문제가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예수아께서는 단지 그들에 대해서만 이야기 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간단한 원칙, 곧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는 그리 쉽게 이것을 망쳐 버릴까요? 예수아께서는 두 가지 예를 드십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잘못이요 또 하나는 이웃 사랑에 대한 잘못입니다. 이 예들은 모두에게 적용이 됩니다. 특별히 ‘사역’에 헌신한 사람들, 그 중에서도 사역 ‘리더’들에게 더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예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입니다. 사역의 리더가 이웃 사랑의 원칙을 간과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사역 리더(제사장과 레위인)는 자신의

사역과 제사장적 부르심의 의미에 너무 초점을 두어 “하나님을 섬긴다”는 핑계로, 고통 속에 도움을 필요로 하는, “우선 순위가 떨어지는” 사람을 도와줄 시간을 내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예는 마르다입니다. 사역에 대한 책임감이 많아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원칙을 놓치는 경우를 보여줍니다. 마르다는 예수아께 가장 가까운 제자 중 하나였고, 가장 책임감 있고 열심히 일하는 이들 중 하나였습니다. 마르다는 자신이 맡은 일에 너무나 정신이 팔려, 주님을 사랑할 기회를 놓쳤습니다. 또한 자신의 자매에게 실족하기도 했습니다. 그녀의 섬김이 사랑을 대신하게 된 것입니다 (계 2:4).

우리 모두 마르다와 사마리아인에게서 배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이 우리의 최고 우선 순위가 되게 합시다.